

인간과 기술, 그리고 예술의 하모니

광주문화재단, 청소년 지구수호 프로젝트
공연예술과 미디어아트 융합 교육
31일까지 접수, 프로그래머에 임용현·추말숙



빛을 이용한 그림자를 매개로 한 수업 장면.

<광주문화재단제공>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외계인이 어느 날 지구를 침공한다. 지구는 대혼란에 빠지며 삼시간에 위협에 빠진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지구를 구할 이들이 있다. 바로 광주의 청소년들.

광주의 학생들은 '지구는 광주 청소년들이 지킨다'고 외치며 특유의 예술을 선보인다. 다름아닌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예술교육(공연)과 미디어아트(기술)가 융합된 아름다운 융복합 예술이다. 마침내 광주 학생들의 도움으로 지구는 위기에서 탈출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의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술+예술의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청소년들에게 융복합 교육의 장, 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이하 정지수 프로젝트를)를 마련했다.

프로젝트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학사일정 고려 탄력적 운영) 모두 12주 동안 12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미디어아트사업단 협업으로 기획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기술입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문화재단이 응모해 79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특화된 기술-예술 역량을 지역사회 환원하려는 취지다.

'정지수프로젝트'는 공연예술과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로 진행된다.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머는 임용현(미디어아트)과 추말숙(공연예술)이 맡는다. 주강사는 미디어아트에 김명우·문창환 작가, 공연예술에 신희홍·양정인 씨가 참여한다. 또한 보조강사로는 미디어아트에 오성현·정덕용 작가가, 공연예술에는 노옥정·전재희 씨가 활약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 개발을 목표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열린 기획'과 '주제적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과 세계로 파장을 확산해가자는 의미다.

신청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과 또래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개의 분반(그림자극+LED, 낭독극+미디어)으로 구성되며, 각 분반별로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융복합 창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프로젝트는 첫날 프롤로그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외계인의 공격을 받고 식민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막이 오른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차시는 공통수업, 3차시는 현장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4-9차시는 분반별 협업교육이 진행되며, 이 시간에는 2개 분반이 각기 주제적 참여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 10-12차시에는 결과물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70-7454)를 통해 가능하다.

문화재단은 코로나 19 여파를 주시하며 비대면 교육 등 상황에 따른 프로젝트 유연한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80년대 후반, 설이나 추석이다가오 먼 쪽 찾아가는 곳이 있었다. 광주 충장로 5가에 자리한 한복점 '부영상회'였다. 문화부 초년 기자 시절, 한복키사는 명절 특집 기획의 단골 아이템이었다. 장소에 어울리는 한복 차림에서부터 고름 매는 법 등을 지면에 소개하려던 한복연구가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지만 당시엔 신문이 그 '역할'을 대신하던 때였다.

지난 1970년 충장로에 문을 연 부영상회는 수십 여개의 한복집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곳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단아한 인상의 박혜순(한복연구가)씨가 취재일행을 반갑게 맞았

었던 충장로 한복의 거리가 절반에 가까운 40개만 남아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로 부터 한복집을 물려 받은 후 상호를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부유할 '부(富)에 길 '영(永)으로 이름을 지었어. 보통 영화로써 '영(影)을 많이 쓰는데, 영원할 '영'이라고 지었어. 저와 고객들이 오래오래 부자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최영권 대표)

이름 덕분일까. 부영상회는 강산이 서너번 바뀌는 동안 한복집들의 흥망 성쇠를 곁에서 지켜 보며 충장로의 토박이를 자처하고 있다.

어디 부영상회 뿐이라. 젊은이들이

오래된 가게, 문화가 되다

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박씨는 남편 최영권씨와 함께 시어머니의 가업을 이어 받아 한복집을 운영했다. 각양각색의 원단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운 가게에는 신랑신부들의 결혼예복에서부터 아이들의 색동저고리까지 '때깔 좋은' 한복들이 전시돼 있었다. 삭막한 일반 사무실에서는 느끼기 힘든 '화사한' 분위기에 매료돼 즐겁게 취재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부영상회를 찾을 일이 없어지면서 추억속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며칠 전, 근 30년 만에 부영상회 소식을 들었다. (사)충장상인회가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충장로 오래된 가게 (임인자·황지은 췌)에서 박 씨 부부의 근황을 접하게 된 것.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 착잡하면서도 아쉬움이 밀려 들었다. 88 서울올림픽 무렵, 70여 곳이 성업중이

데이트를 하던 '남양탕탕', 취업후 첫 양복을 맞췄던 '전병원 양복점', 서민들의 '발'이 된 '노틀담 & 바이슨'까지 책에는 58개의 오래된 가게와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에는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열정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충장로 5가 번영회를 맡은 전병원 회장(대한민국 명장)이 충장로 역사를 기록하고 오래된 가게를 기념하려는 취지에서 동판 사업을 동구청과 충장상인회에 제안하게 됐다.

무릇, 오래된 가게는 그 자체가 유산이자 문화다. 현재 광주에는 충장로를 비롯해 30년 이상된 160여 개의 가게가 세파에 맞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브랜드로 키우는 건 이제 지역의 몫이다. 오래된 가게가 100년 이상 '오래가게' 지혜를 서울올림픽 무렵, 70여 곳이 성업중이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리산 문학상에 김참 시인 선정

최치원시인문학상 정성원 시인

제15회 지리산 문학상에 김참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거미와 나'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

지리산문화회와 계간 '시산맥'은 올해 지리산문학상에 김참 시인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문자·홍일표·조정희 시인 등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 '기린'을 포함한 7편이 일관되게 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에서든 삶에서든 무엇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조 시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평했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시인은 1995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시간이 멈추자 나는 날았다', '미로여행', '그림자들', '뺨집을 비추는 불꽃겨울' 등을 펴냈으며 현대시인상, 김달진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지리산문학상은 시상 전년도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제로 운영되며 함양군과 지리산문화회가 제정해 운영돼 왔다.

지리산문학상과 함께 공모한 제15회 최치원시인문학상



김참 시인

정성원 시인

에는 정성원 시인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안개제조공장 굴뚝에 사는 소녀를 아나?' 등 5편이다. 정 시인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글도리끼 동인으로 활동중이며 이번 수상으로 계간 '시산맥' 등단자로 인정된다.

한편 지리산문학상과 최치원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31일 함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지리산문학제에서 개최되며 수상자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계간 '시산맥' 가을호와 '지리산문학' 동인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문의 010-7357-5104.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대 강지현교수 번역 출간 '동해도...' 학술원 인문학 분야 우수도서 선정

전남대 강지현교수(문화사회학과 대학원 국제학부)가 번역 출간한 '동해도 도보여행기: 근세일본의 요절복통여행기' 2권 (세창출판사)이 2020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인문학분야에 선정됐다.

인문학분야 우수도서 66종 가운데 1종으로 선정된 이번 책은 일본의 200년 전 언어유희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무사에서부터 마부, 거지, 아낙네, 매춘부 등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이 등장한다.

특히 속사포처럼 내뿜는 비속어를 비롯해 사투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당대의 풍속을 가늠할 수 있다. 당초 소설은 1802년-1822년까지 간행됐으며 그 중 3편~5편추가(이세신군 순례길)를 제1권에, 6편-8편(교토 오사카 구경 길)을 제2권에 담았다. 특히 각 지방사투리는 일본 각 지역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영향 과학도서·SF소설 판매 역대 최대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과학 도서와 SF소설에 대한 판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집계 따르면 올해 과학 분야 도서는 지난 17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사태로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비례한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이 과학 관련 책을 많이 찾은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 분야 가운데 '코스모스'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끼적 유전자', '위험한 과학책' 시리즈 등이 뒤를 이었다.

SF 소설은 12% 늘었는데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비롯해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티드 탕의 소설들이 인기를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비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가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센터

☎ 062)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일)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우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화로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퀵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복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어수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무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